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13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시정혁신 담당관실	담당자	• 시정혁신팀장 김민석 ☎440-1641 • 담당자 박진령 ☎440-16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 KBS 수신료 인천 환원관련 현황 등 논의
 - 3.10일 전체회의서 지역방송국 설립, 지역뉴스 40분 편성 요구 등 토의 -
 (KBS 수신료 납부액 전국 3번째임에도 지역방송국 부재, 인천 뉴스 편성·보도 부족으로 인천시민의 지역적 권익 대변의 어려움 등 문제점 집중 논의)

KBS 수신료의 인천 환원과 더불어 인천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방송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 (단장 이상범)이 1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KBS 수신료 인천환원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된 ‘시정혁신준비단’은 민선7기 정책·사업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해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는데, 그 중 하나가 ‘KBS 수신료 인천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다.

인천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다.

* '21년 수신료 수입액 총액(6,863억원)중, 경기(1,452억원), 서울(1,161억원), 인천(595억원)

** KBS 지역방송국 현황 : 9개 방송총국(부산,창원,대구,광주,전주,제주,대전,청주,춘천),
9개 지역국(울산,진주,포항,안동,목포,순천,충주,강릉,원주), 경인방송센터(수원시 소재)

KBS가 2018년 말 지역방송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저녁 7시 뉴스 시간대 전체를 지역총국이 직접 제작·편성토록 하는 ‘〈뉴스7〉 지역화 방안’을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지역방송국이 없는 인천은 더욱더 KBS 뉴스 소외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TV 방송국 부재로 인해 인천 지역뉴스 편성·보도가 부족해 민생 정책안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 시정혁신단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은 단순히 KBS 수신료 납부총액만 전국 세 번째인 것이 아니라, 특·광역시 인구수 대비 1인당 수신료 납부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방송국이 없어 지역뉴스의 불균형·불공정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KBS 수신료 인천 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 지역뉴스 40분 편성 등에 대한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